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1 pp. 595-603,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1.595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교육요구도 분석

황영희, 박선정*
여주대학교 간호학과

Educational needs analysis for key vocation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Young Hui Hwang, Sun-Jung, Park*
Department of Nursing,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항목의 현재수준과 중요수준을 파악하고, 직업기초능력 항목에 대한 교육요구도 우선순위를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수도권, 강원 및 중북권 소재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411명의 응답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정, Borich 요구도 및 The Locus For Focus Model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은 직업기초능력항목 중 '직업윤리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의 현재수준은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고, '의사소통'과 '조직이해능력'의 현재수준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직업기초능력 항목 중 '직업윤리능력',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직업기초능력 10개 항목 모두 중요수준과 현재수준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우선순위 분석결과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자기개발'의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교육요구도를 고려한 직업기초능력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and analyze the educational needs for key vocation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411 nurse students at five universities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1 to June 31, 2016.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23.0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 paired T-test, Borich's Needs Analysis, as well as the Locus for Focus Model. Based on the results, the subjects recognized the present level of 'professional ethics,' 'self development' and 'interpersonal skills' to be high and those of 'communication skills' and 'skills for understanding groups' to be low. 'Professional ethics,' 'self development,' 'problem solving skills' and 'communication skills' were the most important sub-elements of vocational competency.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cognition levels between present and importance ere found in all components of vocational competency. The four priorities were analyzed based on Borich's needs value. In accordance with the Locus for Focus model, 'communication skills,' 'problem solving,' 'resource management skills' and 'self development' were identified as the highest priority sub-factors of vocational competency to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to develop the nursing student's vocational curriculum and program.

Keywords : Education Needs Assessment, Nursing Student, Vocational education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여주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n-Jung, Park(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Tel: +82-31-880-5519 email: bun8973@naver.com
Received September 30, 2016 Revised (1st October 26, 2016, 2nd November 9, 2016)
Accepted November 10, 2016 Published November 30,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산업사회는 지식, 정보, 기술이 급격히 변화하고 직업・직종의 분화, 신규 직종의 생성 및 소멸 등의 노동시장 변화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의 직업기초능력을 포함한 폭넓은 교양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1]. 특정 전공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졸업생들이 지식기술의 변화 및 고용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괴리되어 직무수행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들 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2]. 이에 맞추 어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모든 전공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핵심역량이자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직업기초능력의 역량강화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1]. 직업기초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직무내용 및 직위 변화 같은 직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다[3].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영역으로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기술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등이다[3].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직업과 직무수행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직업사회에서는 특정 직무 관련 한정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재보다는 어떤 직무에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고, 대학은 직업기초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에 따라 국내외 여러 대학들은 소속 학생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세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다[2]. 대학 역시 학벌이나 배경보다 개개인이 가진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우선시하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재학생들이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전문 직업 인력으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직업기초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4,5].

간호학은 현장에서 간호 대상자를 대면하는 실천, 응용 학문이기에 간호사는 병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산업장 및 학교 등 다양한 환경에서 대상자와 마주하며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다[6]. 직업기초능력에 해당하는 상호협력체계 구축, 대인관계, 조직에 대한 이해력, 예절 및 태도, 책임감 등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교육시켜야 하는 기초적인 역량으로 교육과정에서 꼭 적용되어야 할 항목이다[7]. 앞으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떠한 임상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기초능력을 갖춘 간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교육 관련 연구로는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산업체와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4], 기업인사담당자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요구분석 연구[2], 직업기초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개념 정의 연구[5]. 직업기초능력의 중요도 및 교육 요구도[8], 간호・사회복지 분야의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9]. 직업기초능력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한 연구[10],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 및 교과과정을 분석[11].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12-13]. 그러나 간호사가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인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한 교육요구분석이 진행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이 인식하는 직업기초능력 항목의 현재 수준과 중요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직업기초능력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직업기초능력 항목의 우선순위 항목을 도출할 것이다. 즉, 간호 대학생이 인지하는 직업기초능력의 요구도 분석을 통하여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편성과 효과적인 직업기초능력 교수학습체제개발 및 교육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항목의 현재수준과 중요수준 그리고 교육요구도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직업기초능력 교수학습체제개발 및 교육방안 도출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1.3 용어 정의

직업기초능력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 한 것으로 한 근로자가 자신의 직

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다[4].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기술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직업윤리능력, 조직이해능력으로 측정하였다[1].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항목에 대한 교육 요구도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 강원 및 중북권 소재 5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간호 대학생에게 서면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수락한 426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응답이 불충분하였던 15명을 제외하고 411명을 대상자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 표본 크기는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인 G*Power3.1.5[15]를 이용하여 95% 검정력 수준에서 유의수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인 .15로 지정하였을 때 최소는 290명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해 411명의 자료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 된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2016년 6월 31일까지이며, 자료는 연구자와 설문조사원에 의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원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답변이 가능하도록 훈련된 자이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의 중도 거부 가능, 개인정보보호, 설문소요시간 등에 관하여 사전 설명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면 언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후 소정의 선물이 제공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직업기초능력

본 연구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 제시한 직업기초능력 개념과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한 도구를 사용하며[4], 본 연구 도구의 타당도는 2회에 걸쳐 간호학 교수 2인과 대학병원에 근무중인 수간호사 2인을 통해 검증받았다.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를 측정하는 34문항으로 현재 수준은 '매우 낮다~매우 높다'로, 중요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매우 중요하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의사소통능력는 문서이해, 문서작성, 경청, 의사표현 그리고 기초외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69이었다. 수리능력은 기초연산, 기초통계, 도표분석 및 작성 능력을 측정하는 4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78이었다. 문제해결능력은 사고력과 문제처리능력을 측정하는 2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67이었다. 자기개발능력은 자아인식, 자기관리 그리고 경력개발을 측정하는 3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66이었다. 자원관리능력은 시간관리, 예산관리, 물적자원관리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능력을 측정하는 4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1이었다. 대인관계능력은 팀웍,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 그리고 고객서비스 능력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63이었다. 정보능력은 컴퓨터활용와 정보처리능력을 측정하는 2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60이었다. 기술능력은 기술이해, 기술선택 그리고 기술적용 능력을 측정하는 3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73이었다. 조직이해능력은 국제감각, 조직체제이해, 경영이해 그리고 업무이해능력을 측정하는 4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69이었다. 직업윤리는 근로윤리와 공동체 윤리를 측정하는 2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7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직업기초능력 항목의 현재수준과 중요수준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간호 대학생이 인식하는 직업기초능력 항목의 중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측정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사용하였으며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은 Borich 요구도 공식을 활용하여 산출하고,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G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 방법, 연구 대상자 권리보장 및 설문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IRB. KWNUIRB -2016-04-007-001)을 받았다. 해당 대학교 교수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구자가 각 부서의 책임자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 및 동의서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직접 배부, 회수하였다. 설문지에는 설문내용이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개인정보와 조사된 자료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을 명시한 설명문과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60명(14.6%), 여학생 351명(85.4%)로 총 411명이었다. NCS 교육경험은 '없다'가 314명(76.4%). '1회 이상'이 97명(23.6%)이었다. 대학생활만족도와 전공만족도는 207명(50.4%), 260명(60.8%)이 만족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11)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Male	60(14.6)
	Female	351(85.4)
Age(yr)	Less 20	29(7.1)
	21-23	275(66.9)
	24-26	79(19.2)
	more 27	28(6.8)
Grade	1st grade	10(2.4)
	2nd grade	126(30.7)
	3rd grade	154(37.5)
	4th grade	121(29.4)
School record	High	78(19.0)
	Middle	252(61.3)
	Low	81(19.7)
Based vocational skills education (frequency)	None	314(76.4)
	1	55(13.4)
	2-3	34(8.3)
	more than 4	8(2.0)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very satisfaction	27(6.6)
	satisfaction	180(43.8)
	normal	159(38.7)
	dissatisfied	42(10.2)
	very disappointed	3(0.7)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action	52(12.7)
	satisfaction	198(48.2)
	normal	120(29.2)
	dissatisfied	37(9.0)
	very disappointed	4(1.0)
All		411

3.2 직업기초능력 항목의 현재수준과 중요수준

연구대상자가 직업기초능력 항목 중 현재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한 항목의 평균은 '직업윤리능력'은 4.11, '자기개발능력'은 3.56, '대인관계능력'은 3.55이었다. 반면에 현재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한 항목의 평균은 '의사소통'과 '조직이해능력' 3.28이었다. 연구대상자가 직업기초능력 항목 중에서 중요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항목의 순서와 평균은 '직업윤리능력'이 4.47, '자기개발능력'은 4.29, '문제해결능력'은 4.28, '의사소통능력'은 4.21, '자원관리능력'은 4.18, '대인관계능력'은 4.10, '정보능력'은 4.10, '기술능력'은 4.05, '조직이해능력'은 3.90, '수리능력'은 3.68 순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의 현재수준과 평균 차이

직업기초능력 현재수준은 학년(F=7.458, p<.001), 대학생활만족도(F=8.710, p<.001), 간호학과 만족도(F=8.455, p<.001), 성적(F=20.831, p<.001), 직업기초능력 교육경험 유무(F=2.958, p=.020)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학년이 높고, 대학생활만족도와 간호학과 만족도가 높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직업기초능력의 현재수준을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직업기초능력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직업기초능력의 현재수준을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직업기초능력의 중요수준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직업기초능력 항목의 t검정과 Borich 요구도 분석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직업기초능력 항목의 현재수준과 중요수준의 평균 차이는 의사소통(t=31.848, p<.001), 수리(t=6.006, p<.001), 문제해결(t=20.982, p<.001), 자원관리(t=19.686, p<.001), 자기개발(t=20.293, p<.001), 대인관계(t=17.906, p<.001), 정보(t=16.478, p<.001), 기술(t=16.350, p<.001), 조직이해(t=19.272, p<.001), 직업윤리(t=10.526, p<.001) 10개 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10개의 항목들 중에 현재수준과 중요도의 평균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의사소통능력이 0.93이었으며, 평균의 차이가 가장 적은 항목은 수리능력이 0.23이었다.

Table 2. Difference between present level and importance in vocational competency's component and Borich`s needs analysis (N=411)

Cathgory	Present level	Importance	Difference	t	p	Borich 요구도	우선 순위
	M±SD	M±SD	M±SD				
communication skills	3.28±.50	4.21±.46	.93±.59	31.848	<.001	3.92	1
mathematical skills	3.45±.66	3.68±.63	.23±.77	6.006	<.001	.84	10
problem solving skills	3.46±.66	4.28±.62	.82±.79	20.982	<.001	3.51	2
resource management skills	3.46±63	4.18±.59	.72±.74	19.686	<.001	3.02	4
self development	3.56±.61	4.29±.54	.73±.73	20.293	<.001	3.15	3
interpersonal skills	3.55±.63	4.16±.55	.62±.70	17.906	<.001	2.57	6
information skills	3.45±.73	4.10±.61	.65±.80	16.478	<.001	2.66	5
Technological skills	3.45±.57	4.05±.61	.60±.74	16.350	<.001	2.43	8
skills for understanding groups	3.28±.58	3.90±.59	.62±.66	19.272	<.001	2.43	7
professional ethics	4.11±.73	4.47±.64	.36±.69	10.526	<.001	1.61	9
Total	3.48±.40	4.11±.40	.64±.46				

Table 3. Present level and importance in vocational compet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11)

Characteristics	Category	Present level	t or F(p)	Importance	t or F(p)
		M±SD		M±SD	
Gender	Male	3.43±.46	-.882(.378)	4.05±.43	-1.231(.219)
	Female	3.48±.39		4.12±.40	
Age(yr)	Less 20	3.55±.52	1.174(.319)	4.21±.44	o.694(.556)
	21-23	3.46±.37		4.10±.41	
	24-26	3.51±.41		4.10±.40	
	more 27	3.39±.49		4.13±.35	
Grade	1st grade	3.57±.46	7.458(<.001)	4.15±.20	1.181(.317)
	2nd grade	3.52±.43		4.09±.42	
	3rd grade	3.35±.38		4.07±.41	
	4th grade	3.55±.36		4.16±.39	
School record	High	3.65±.38	20.831(<.001)	4.16±.42	.964(.382)
	Middle	3.48±.39		4.10±.40	
	Low	3.26±.38		4.09±.40	
NCS education (frequency)	None	3.45±.39	2.958(.020)	4.10±.41	.445(.776)
	1	3.45±49		4.10±.41	
	2-3	3.54±.32		4.20±.40	
	4	3.85±.25		4.10±.41	
	more than 5	3.97±.58		4.13±.18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very satisfaction	3.68±.38	8.710(<.001)	4.15±.40	3.194(.013)
	satisfaction	3.56±.40		4.16±.39	
	normal	3.39±.36		4.07±.40	
	dissatisfied	3.28±.41		4.07±.41	
	very disappointed	3.28±.35		3.46±.49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action	3.67±.39	8.455(<.001)	4.18±.39	1.971(.098)
	satisfaction	3.49±.40		4.14±.39	
	normal	3.44±.37		4.05±.42	
	dissatisfied	3.20±.39		4.00±.38	
	very disappointed	3.27±.43		4.11±.82	

직업기초능력 항목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우선순위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Borich 요구도 공식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높은 Borich 요구도를 나타낸 항목은 의사소통(3.92), 문제해결(3.51), 자기개발(3.15), 자원관리(3.02), 정보(2.66), 대인관계(2.57), 조직이해(2.43), 기술(2.43), 직업윤리(1.61), 수리(0.84) 순이었다[Table 2].

3.5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교육요구도와 우선순위 분석

Borich 요구도는 1순위에서 마지막 순위까지 나열할 수 있지만, 요구항목이 많은 경우 어느 순위까지 일차적으로 고려해야하는지 의사결정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좌표평면을 이용한 우선순위 결정 요구분석 방법 중 하나인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최우선순위 직업기초능력 항목을 도출하였다. 간호대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 항목의 중요수준 평균은 4.11이며, 현재수준과 중요도의 불일치 평균은 0.64로 나타났다. 중요수준 평균과 불일치 수준의 평균을 축으로 하여 4개의 분면으로 구분하여 제 1사분면의 영역이 중요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고, 불일치 수준이 높은 분면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항목들이다. The Locus For Focus Model 분석결과, 제 1사분면에 포함된 항목은 총 4개(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자기개발)로 나타났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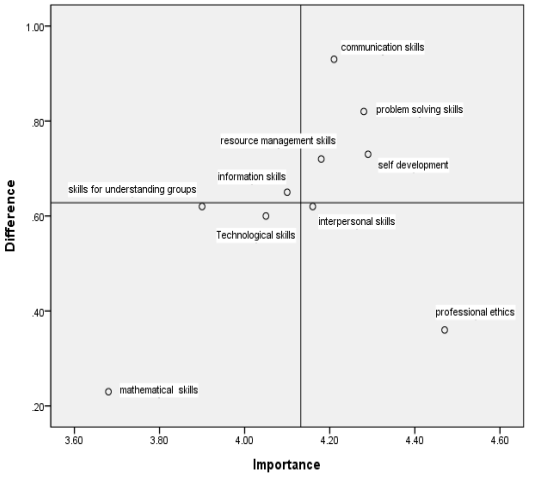

Fig. 1. Priority of educational needs in vocational competency by the Locus for Focus Model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이 인식하는 직업기초능력 각 항목의 현재수준과 중요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요구도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추후 간호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현재 대학의 현장적합성 제고와 질적 수월성 향상을 위한 직업기초능력과 관련되어진 교육과정 도입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6] 연구 대상자의 직업기초능력 교육경험은 '없다'가 76.4%. '1회 이상'이 23.6%으로 조사되었다.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과정 도입과 활용에 적극적인 관심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학년이 높고, 대학생활 만족도와 간호학과 만족도가 높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직업기초능력의 현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 Rhee[17]의 연구에서도 학년에 높고 성적이 좋을수록 직업기초능력의 현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업기초능력 항목들에 대한 교육 시 학년, 성적 등의 개인적인 배경변인과 직업기초능력과의 관계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하다[7]. 또한, Baek[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의 현재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NCS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간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능력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직업기초능력 10개 항목 모두 현재수준과 중요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기초능력 각 항목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수준은 낮아 양 수준 간 차이가 크므로 직업기초능력 각 항목들에 대한 교육요구가 있는 것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Lee[5]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대상자의 직업기초능력의 현재 수준과 중요수준의 차이는 교육 요구를 고려한 직업기초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간호 대학생의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은 직업기초능력 항목은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 Kim[19], Lee[20], Jin etc[21]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일치하여 본 연

구결과가 지지되었다. 특히, ‘의사소통’은 현재수준과 중요도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으로 간호 대학생이 졸업 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간호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함양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요구에 부합한 직업기초능력 항목에 대한 교육과정이 우선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및 제공될 필요가 있다[2]. 또한, ‘자기개발능력’의 교육 요구가 높은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비교육과정의 개발의 필요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 간호 대학생의 교육 요구도가 가장 낮게 측정된 직업기초능력 항목은 ‘수리능력’으로 이는 Kim etc[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수리능력’은 간호 대학생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수준과 중요도의 차이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임상 실무 및 간호대학 구성원들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인식과 요구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을 정립 할 필요가 있다[1].

3학년의 직업기초능력 현재수준이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시기가 3학년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간호 대학생들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를 만나면서 본인의 직업기초능력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현재 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에 따라 임상실습이라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상실습 전 직업기초능력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개개인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학습자 중심의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이 개발 되어 운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현재까지 대학 내 직업기초능력 교육 운영은 교양과목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학년별 또는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학문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신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20]. 또한 간호 대학생이 자신이 전공하는 학문적 특성과 자신의 직업기초역량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직업기초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와 평가결과에[23]따른 교육안내를 통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직업기초능력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교육요구를 확인하고, 직업기초능력 교수학습체제개발 및 교육방안 도출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가 인식하는 직업기초능력의 현재수준은 ‘직업윤리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의 높은 것으로, ‘의사소통’과 ‘조직이해능력’의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간호 대학생이 인식하는 직업기초능력 중요도 평균은 4.11이며, 항목별 중요도는 ‘직업윤리능력’,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순이었다. 직업기초능력 10개 항목 모두 현재수준과 중요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 대학생의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은 직업기초능력 항목은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이었다.

이상에 결과를 통해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에는 직업기초능력의 현재수준과 중요도 파악한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직무수행준비도와 역량이 함양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간호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과 교과목이 연계됨으로써 교육과정이 해당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여도에 대해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5개의 대학에만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불충분함으로 추후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대학의 간호 대학생을 확보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변수 이외에 간호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간호학과는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지침들을 상시 모니터링 하며, 새롭게 변화된 기준과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현장중심형 교육과정개발에 심열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에 다루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함으로 병원 업무에 대해 단순히 지식과 스킬을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Internet]. Ulsa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c2016[cited 2016 March 4], Available: http://www.ncs.go.kr (accessed Mar. 4, 2016)

[2] Washer, P, "Revisiting Key Skills: A Practical Framework for Higher Education," *Quality in Higher Education*, vol. 13, no. 1, pp. 57-67, 2007. DOI: https://doi.org/10.1080/13538320701272755

[3] I, J, Ju, J. Y. Jo, G. B. Im,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Business Issues and Policy," the HRD review, Autumn. 2010.

[4] H. J. Jeong,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Vocational Course on the Basis of NCS",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vol. 53, pp. 191-201, 2015.

[5] H. E. Lee, "The Needs Analysis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Key Competencies : Centering on Comparison of Perception Between HR Practitioners and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Cheonan, 2015.

[6] C. Y. Jeong,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Linkage between Key Competencies and National Core Curriculum", *Korea Vocational Education Society,* vol. 18, no. 1, pp. 21-37, 1998.

[7] M. S. Han, J. Y. Lee, "The Relation between Dental Technician's Social Support and Individual Competency," *Journal of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7, pp. 4449-4456,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7.4449

[8] W. S. An, Y. M. Lee, W, S, Cho, "Study on Degree of the Educational Need for the Key Competencies of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by Teacher," *Korea Studies of the Technology Education.* vol. 7, no. 3, pp. 31-47, 2007.

[9] S. H. Woo, K, H, Lim, S, G, OH, J, S, Kim. Key Competencies Level of Students Recognized by Specialized Subjects Teachers in Industrial High School",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4, no. 3, pp. 69-98, 2005.

[10] S, Y, Gwon, M. S. Kim. Y. S. Han,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on Basic Occupational Competenci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Influence of Self-efficacy," Korea Psychological Society symposium, pp. 140-141, 2009.

[11] M. R. Lee, I. G. Yun, "Content Analysis of Secondary Technology, Home Economics(Home Economics Field) Textbooks: Focusing on Education for Key Competencies Needed for the Workforc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ecation Research.,* vol. 27, no. 4, pp. 65-88, 2008.

[12] M. B. Kim, Y. B. Kim, Y. S. Kim, "Computer Education Curriculum and Instruction : Effects of Project Learning on Information Skills among Key-Competencies in "Homepage Development" Lesson,"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Computer Learning Paper*, vol. 10, no. 1, pp. 31-40, 2007.

[13] I. S. Kim, "The Effect of the Problem-based Learning in the Practical Skill Instruction of the Heat Treatment and the Tensile Strength Test to Improve the Key Competencies,"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ion*. vol. 32, no. 1, pp. 1-32, 2007.

[14] S. Y. Kim, H. J. Yo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ssential Competency Assessment of Vocation for Local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 15, no. 4, pp. 71-100, 2013.

[15]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1, no. 4, pp. 1149-1160, 2009. DOI: https://doi.org/10.3758/BRM.41.4.1149

[16] J. M. Baik, Y. K. Park, "An Exploring Study on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for University Education,"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2, no. 2, pp.1-19, 2012.

[17] A. N. Kim, B. S. Rhee, "An Analytic Study of Identifying Personal and Institutional Influences on the Perceived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0, no. 1, pp. 367-392, 2003.

[18] P, G. Baek,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nd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nd Undergraduates' Individual Variant Factor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6, no. 7, pp. 349-387, 2013.

[19] J. I. Lee, J. H.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ssential Skill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1, no. 2, pp. 227-246, 2012.

[20] J. P. Lee, "A Comparative Analysis on Good Practices for Developing Basic Workplace Skills for University Students in Selected Countries,"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vol. 15, no. 2, pp. 171-195, 2005.

[21] M. S. Jin, Y. M. Sohn, H. J. Chu, "A Study on Development Plan of K-CESA for College Education Assess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29, No4, pp. 461-468, 2011.

[22] S. N. Kim, Y. S. Kwon, J. S. Shin, "A Study for Promoting key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vol. 42, pp. 57-77, 2012.

[23] S. H. Kim, "A Study on Improvement of Education for Workplace Key Competence in Tourism and Culinary System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nyang University. Gyeonggi. 2007.

황 영 희(Young-Hui, Hwang) **[정회원]**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3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여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중환자간호, 만성환자 간호

박 선 정(Sun-Jung, Park) **[정회원]**

- 2011년 2월 :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여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 건강증진, 부모 양육행위